

일거수 일투족이 동중선인 청담 스님 가르침 실천

도선사 한주 동광 스님



호국참회기도도량으로 유명한 삼각산 도선사에는 어느 절 보다 포교, 복지에 능한 스님들이 많다. 이는 수좌면에서도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선 후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정을 역임하며 조계종 총무원장의 기틀을 다진 청담(淸潭, 1902~1971) 스님의 가풍(家風) 탓이라.

도선사 한주 동광 스님도 그러한 분이다. 조계종 중앙총회 부의장과 불교방송 이사, 청담학원 이사장, 중앙승가대 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중앙총회 의원,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소임을 맡아 포교 및 복지·인재발수에 헌신하고 있다. 활발한 전법활동을 펼치면서도 언제나 고요한 미소를 잃지 않는 동광 스님은 은사인 청담 스님처럼 하심과 자비행이 몸에 배인 스님이다.

동광 스님은...
1942년 서울 출생. 1970년 도선사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 71년 석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4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도선사 주지, 조계종 중앙총회 부의장, 불교방송 이사, 청담학원 이사장, 중앙승가대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도선사 한주, 청담장학문화재단이사장, 중앙총회 의원, 생명나눔실천회 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물고기에게도 법문을 하는 청담 스님에 큰 감화

계곡의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동광 스님의 처소에 다가서니, 스님이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나는 선지식도 아니고, 법문할 것도 없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청담 스님 문하에서 인욕, 하심공부를 몸으로 익힌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942년 서울 시내의 목실한 불교집안에서 태어난 동광 스님은 어린 시절, 부친의 고향인 상주에서 자랐다. 상주중, 상주농고를 다닐 때 불교학생회 '몸비니' 회원으로 활동했는데, 몸비니 총재인 청담 스님을 이때 알게 됐다. <금강경>을 비롯한 경전에도 밝았던 부친과 철손이 넘어서도 <천수경> 독송과 염불을 쉬지 않고 봉정암 순례까지 하던 모친의 영향을 받아 '다른 일보다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 줘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다.

청담 스님과 사제의 연을 맺게 된 것은 중앙대에 진학했으나 가정 형편과 몸이 좋지 않아 휴학하고 있을 때였다. 친구를 통해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청담 스님을 뵈게 된 것. 1970년 3월, 조계사 총무원장실에서 첫 인사를 드리자, 청담 스님은 이렇게 물었다.

"니, 뭐하러 왔나?"

"부처님 깨달음을 알아서 동방에 빛을 발하겠습니다."

그러자 청담 스님은 "니, 밥 못 먹어서 밥 얻어 먹으러 온 거 아니지?" 하시며, '동방의 빛'이란 뜻을 지닌 동광(東光)이란 법명을 지어주셨다.

신도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웠던 청담 스님은 매사에 감격했으며, 제자들에게는 하심과 검소한, 부지

청담 스님 유지 이어 진주에 청담기념관 설립 발원

런함을 맡음이 보여준 엄격한 분이였다. 총무원장 재임시에도 새벽예불과 108배를 거르지 않을 정도로 숭신수범한 스님은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종단 정화와 불교 증흥을 위해 위법망구(佛法忘顧)의 일생을 회향했다. 열반한 지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대중의 가슴에 하심, 인욕, 정진 바라밀의 수범으로 기억되어 자비보살, 인욕보살로 존경받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특히 청담 스님은 중생의 무명을 밝히기 위해 가지가지의 설법으로 긴 법문을 하기로 유명했다. 서너시간 법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며, 한 사람이라도 경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지어 밤을 새워가며 설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철손의 고향에도 열반하는 순간까지 법문을 쉬지 않은 청담 스님은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설법제일 부부나 존자'였다.

제자들이나 초청하는 인사들이 설법을 중단시키길 청하면, "아닙니다. 어디 사람에게만 법문을 하나요. 삼라만상 우주법계에도 하지요."라고 하셨다. 산 사람은 물론 죽은 송장 앞에서 법문을 했으며, 설법하다가 소변 보러 갔다 올 수 없다면 기저귀를 차고 법문했다는 전설적인 일화는 청담 스님의 중생구제의 원력을 엿보게 한다.

동광 스님은 1971년 11월 15일 청담 스님이 입적하

기 1주일 전 대구, 안동, 부산까지 스님을 마지막으로 모시면서 스승의 유훈과도 같은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부산 범어사에서 열리는 국제보살계 수계식에 참석하기 위해 청담 스님은 처음으로 열린 조계종 중진스님 재교육에 참석했다. 50여 명이 참석한 화계사 법당에서 청담 스님은 "앞으로 스님들이 공부할 안 하면 30~50년 후에 사회인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불교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수행과 포교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 동화사 주지 경산 스님 진산식에 참석하러 대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운 저녁이었다. 동광 스님이 초를 사서 밤길을 밝히며 산길을 걷는데, 청담 스님은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니 처음 마음 먹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진리를 전하는 훌륭한 불제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이윽고,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 수관(水罐)에 이르자 남은 초를 끄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초를 밝혀 놓으라고 하셨다. 사소한 듯 보이는 이타행에 동광 스님은 느낀 바가 적지 않았다.

다음 날, 청담 스님은 안동교육대학 학생회의 초청으로 법문을 하러 가게 되었다. 교편이 불편해서 약속시간을 겨우 맞춰서 법문을 시작했는데, 대학생들이 크게 환희심을 내자 고향에도 불구하고 무려 3시

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쉬지 않고 법문했다.

안동에서 잠을 잔 후 그 다음날 새벽, 범어사 국제보살계 수계식에 참석하기 위해 내려갔다. 대만의 고승 백성(白聖) 스님과 베트남의 차오 스님 등 외국 고승 20명과 국내 고승 30여 명이 대거 참석한 3일간의 국제행사를 무사히 거행하자, 정부에서는 당시 제일 큰 군함으로 각국 고승들을 모시고 한산섬까지 유람을 시켜주었다. 바닷바람이 불자 대부분의 스님들이 실내로 들어갔는데, 청담 스님은 홀로 주강자를 짊고 군함 말미에서 바닷물을 응시하며 수중중생을 위해 염불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동광 스님은 큰 감명을 받았다.

"물고기들에게까지 법문하시는 모습을 보고 스님께서 만 중생을 위해 법을 전하는 구나. '이것이 도인의 자비심이로구나' 하고 감탄했지요."

국제보살계 수계식을 보행하고 상경한 후 3일만에 청담 스님이 입적하시자, 동광 스님은 스승을 시봉한 시간들이 마치 부처님께서 길에서 열반하셨듯이 마지막 전법의 여정에서 유혹을 남긴 것이었음을 실감했다. 특히 지방으로 가시기 며칠 전, 밤을 세워 '光明(광명)'이란 휘호를 쓰시고 서명 위에 '靑潭(靑潭)반열반'이란 글자를 써 당신의 열반을 암시했다는 것이 동광 스님이 증언이다.

"그날따라 같이놓은 먹이 남으면 종이를 준비하고, 종이 남으면 먹을 또 갈도록 해서 먹고 종이가 딱 들어맞을 때까지 '광명'이란 글자를 쓰셔서 어느덧 날이 새고 말았습니다. 제가 먹을 갈면서 '글씨가 쇠

바퀴 굴러가듯 굉장한 힘이 느껴집니다.' 하니 스님께서서 무척 좋아하셨지요."

은사에 대한 동광 스님의 그리움과 존경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모른다. 이제 화제를 돌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질문을 던졌다.

"1998년 도선사 주지 재임 때 <마음의 자유를 찾아서>란 법문집을 내신 걸로 압니다. 미망의 끝자기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하셨는데, 스님은 어느 정도 자유를 찾아서 누리시지요?"

"결립 없이 살기 위해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대자유인이신 부처님처럼 자유롭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서인 욕심 내지 않고 조용히 부처님 말씀 전하면서 회향하려 합니다."

"스님께서서는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장학사업으로 인재양성과 포교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이러한 불사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무엇이었지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국민학교 시절, 미군이 학교에 주둔해 책·필사를 화약탄의 장작으로 불태운 적이 있었어요. 교실이 없어지자 마을 이곳저곳에서 공부하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는 집안이 가난해 공납금을 내지 못해서 교실에서 여러 번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니다. 이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큰스님이 인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청소년포교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고, 문도 스님들과 도선사 신도들이 힘을 모아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 진주산업대 전신인 진주공립농업학교 12

부적총만법

符籍總萬法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간한 부적적으로 한 획도 빠짐없이 특수 제작한 코팅된 서적으로 한 장씩도 빼내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본 책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하여 훼손하지 않으면서 바탕에 대고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더욱 빠른 성취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등록번호 제301-2009-233
오남출판사 著 著 수성 오의성

정 가 : 80,000원
입금계좌 : (예금주 : 오의성)
농 협 : 356-0203-2318-53
국민은행 : 347802-04-216456

오남출판사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7-1 / 전화 02)2233-2050, 010-3094-7774

성공과 건강을 돌려주는 우주의 대기운!

빙의치유의 정석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이 책은 오랜동안 빙의와 고질병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 찾아온 연구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서술한 생생한 체험기이다. 특히 저자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설악산 금강굴 안의 쿵대 4개 모퉁에서 솟발서광을 받은후 20년간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온갖 고행을 하게 된다. 37세에 드디어 받은 대우주의 기로 인해 하늘문이 열려 신비의 나라와 소통하게 되는 신비한 능력 때문에 운명의 이장표가 완전 달라지게 된다.

금메달을 향하는 선수에게 모진 훈련이 기다리듯 저자 역시 무지 힘든 역경과 시련의 시험대에서 대우주의 기운과 선행도의 대기운을 아픈이들에게 한사람이라도 소중히 나누어 주고자 오늘도 분주하게 상담실을 지킨다.

오로지 선한 마음으로 화합하려는 대우주의 기운으로 온세상을 아름답게 다듬고자 불철주야 애써온 저자의 변함없는 진실함을 기다리다 기적같은 환희를 체험한 회원

아파도 외로워도 혼자만이 감수하던 빙의의 치료와 구원의 결정판! 빙의시대에 등불이 되어줄 명쾌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행복을 포기한 이시대의 냉기운을 후련하게 달래주는 성공치유의 선행도와 빙의진단요령, 성공을 이끄는 우주의 대기운!

이 책은 오랜동안 빙의와 고질병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 찾아온 연구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서술한 생생한 체험기이다. 특히 저자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설악산 금강굴 안의 쿵대 4개 모퉁에서 솟발서광을 받은후 20년간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온갖 고행을 하게 된다. 37세에 드디어 받은 대우주의 기로 인해 하늘문이 열려 신비의 나라와 소통하게 되는 신비한 능력 때문에 운명의 이장표가 완전 달라지게 된다.

총 5장으로 나누어진 본서의 특징은 일반인들이 흔히 잘모르지만 실생활에는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 많이 저술되어 있으며 끝난 잘 읽어놓는 운동선수로 비유한다면 왜 골을 잘 집어넣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골도 잘넣고 골이 잘 넣어지면 주변 동료들과 팬들과도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확실하게 정돈해 놓은 책이라 할 수 있다.

물질 문명만 앞서고 정신 문명이 꺾어져 질수록 늘어만 가는, 현대의학으로도 해결이 안되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한 줄기 등대같은 이 책이야말로 빙의분야에 새로운 정식으로 다가가는 최상의 필독서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자는 2010년 한국 현대인물연결 33인에 선정되었다.

* 직장인,자영업자,종교인,학생,가정주부,사업자,군인,연예인,교포 등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에도 도움이 되는 책

책 주문 : 전화 02-562-1880, 팩스 02-555-0103 www.spaceri.com 우주의기 연구소 043)237-7588